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마음의 평화



마태오 제 10 주일

성 타대오 사도

(제1조 • 조과 부활 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1조 부활 찬양송 81

성모 안식 축일 찬양송..... 181

성당 찬양송

성모 안식 축일 시기송 181

사도경 : 1고린토 4,9~16 (봉독서202)

복음경 : 마태오 17,14~23 114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사람들은 평화가 마음의 내면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보물이 누군가에게 도난당할 위험이 있는 것처럼, '평화'라는 소중한 보물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는 잘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순교한 증거자들은 고문 당할 때도 마음속에 평화를 지켰습니다. 고통스러운 고문으로 그리스도를 변절할 위기에 처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통해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험의 원인은 마음의 내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마태오 15,19)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한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부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평등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갈라디아 3,28)라고 선언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하느님께서 여자가 남자를 억압하지 않도록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지 않도록 여자를 남자의 발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 옆에 동등하게 조력자로서 서도록, 남자의 옆구리로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 성(性)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서로를 보완하며, 이렇게 해서 ‘공평함’을 이룹니다.

둘째, 다양성입니다. 평등은 모든 것이 똑같아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 성별에는 그만의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신만의 특별한 단점과 결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인

정해야 합니다. 인내와 이해심으로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연합입니다. 이는 두 사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한쪽에게 속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른 한쪽에도 속합니다. 결혼성사 때 봉독되는 사도경 구절에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에페소 5,31~32)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결혼 후에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됩니다. 그러니 어째서 이건 내 것이고 저건 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기본 조건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결혼 생활은 축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화합과 사랑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애정어린 보살핌과 부드러움 없이 싸움과 갈등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후에 슬프고 비극적인 결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이 해체되면 아이는 부모가 채워줄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들, 특히 젊은 부모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며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나요?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친구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더욱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347-407)



어떤 수도자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저에게 이야기해준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병으로 앓고 있어요. 만일 그 아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몸뚱어리를 토막 내서라도 내어줄 거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 이랍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처럼, 그리고 어머니보다도 더하게 그들을 위해 고통을 겪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총이 없는 누구도 이런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찾는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선택하여 뽑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큰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온 땅과 세계를 버렸으며, 그들의 영혼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바라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성 실루아노스 아토스산의 수도자(1866-1938)

표지 사진 설명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사해 북쪽으로 약 28km 떨어진 유다 산악 지대의 해발 780m 고원에 자리 잡고 있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한다.

예루살렘이 역사의 중심 무대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약 1000년 경으로 다윗 왕이 이곳을 정복한 후 '다윗의 도성'이라 불렀다.(사무엘 하 5,7; 역대기 상 11,4~7) 이후 유다와 이스라엘이 합병되고 예루살렘은 통일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사무엘 하 5,3) 다윗이 죽은 후 아들 솔로몬 왕은 도시에 왕궁과 성전 및 성채를 새로 건설하고 언약궐을 성전 안에 보존하였다.(열왕기 상 6장~8장)

지금의 예루살렘은 과거의 역사적인 구 예루살렘과 신예루살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행적을 보면, 성모님은 예수님 출산 후, 모세 율법에 따라 40일의 정결 기간을 지내고(레위기 12,2~4) 성전에서 시메온을 통해 하느님께 봉헌하였다.(루가 2,22~38) 12살 때 에도(루가 2,41), 공생애 초기에도(요한 2,13~16) 주님의 행적은 이어졌다. 골고타에서의 십자가 고난과 거룩한 부활이 이루어진 곳도 예루살렘이었다.

사진은 올리브 산에서 바라본 구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오른쪽 돔 지붕의 건물은 이슬람교의 '바위 사원'으로, 예루살렘 성전 터에 세워졌다.

소식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축일

성모님 안식 축일을 맞아 지난 8월 14일과 15일에 축일 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축일은 새 성당이 건축되고 처음 맞는 성당 축일이어서 더 의미있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 로만 카프착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가 함께 예배를 집전하였고, 서울에서 10명, 부산에서 20여 명의 신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축일을 빛냈습니다. 14일 저녁에는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가, 15일에는 조과, 성찬예배, 행렬과 광복절 대영광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5일 예배 후 이어진 사랑의 오찬 때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가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유언을 읽으며 설명해주었고, 알렉산드로스 신부와 일라리온 신부는 성당 건축 과정을 이야기하며 주님과 성모님의 은총과 도우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한국 정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완공된 전주 성당에 오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셨지만 끝내 오시지 못한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이 하늘에서 축복해주실 것이라고 언급하며, 고인께서 한국 정교회를 위해서 행하셨던 헌신과 공로를 회상하고 그분을 기억하였습니다. 새롭게 건축된 전주 성모 안식 성당의 축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주신 주님과 성모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축하해주기 위해 멀리서 오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일 식사 준비와 청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세례성사

8월 14일 주일, 로만 신부의 집전으로 10명의 슬라브 교인이 세례성사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며,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이뤄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명단 : 신 디미트리, 이 이리나, 신 빅토리아, 신 미하일,
리가이 류드밀라, 본 세르게이, 최 아나스타시아,
에브게니, 안 에벨리나, 티가이 마리아